

'G-페스타 광주' 대장정 마무리... '꿀잼도시' 도약

29일간 17개 축제·행사 등 '성황' 올해 첫 선... '예향·미향' 매력 알려 체류형관광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축제·명소·사람 연결... 시너지 제고

가을 광주를 수놓은 '2024 G-페스타 광주'가 29일 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9월25일부터 이달 26일까지 12개 기관에서 진행한 17개의 축제, 행사, 마이스를 통합브랜드인 'G-페스타 광주'가 막을 내렸다. 올해 첫 선을 보인 'G-페스타 광주'는 축제의 계절인 가을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이자 예술여행도시, 그리고 맛의 도시 광주의 매력을 집중 홍보하고 외래 관광객들의 체류시간을 늘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G-페스타 광주'는 예술을 주제로 한 시즌1 '조이풀(Joyful) 광주', 미식을 주제로 한 시즌2 '테이스티(Tasty) 광주'로 구분해 고유 색을 입혔고 대규모 전시 행사와 연계해 시너지효과를 거뒀다. 특히 'G-페스타 광주'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 축제 통합브랜드 우수사례로 꼽으면서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렸다.

'조이풀 광주'는 지난 9월25일부터 이달 13일까지 19일 간 11개의 행사로 열렸다.

먼저 올해 30주년을 맞은 '제15회 광주 비엔날레' (9월7일~12월1일)를 찾은 방문객이 G-페스타 광주 기간동안 예술과 맛을 주제로 한 행사를 둘러보며 오랫동안

안 광주의 매력을 한껏 즐기는 체류형 관광 환경이 조성됐다.

9월25일 열린 '빛고을 캠퍼스 e스포츠 대회'에서는 관람객이 젊은 층이라는 점을 겨냥해 G-페스타 유료행사인 '렛츠플로피'와 '비어페스트' 등의 할인쿠폰을 제공해 큰 인기를 끌었다.

광주 최대 맥주축제인 '비어페스트'는 9월25일부터 29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 야외광장에서 개최, '광주사운드파크 페스티벌'과 무대를 공유해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했다.

같은 시기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 대표 문화콘텐츠 전시회인 '광주에 이스퍼어'에서는 3만6000여명(2023년 3만5000여명)의 관람객과 3억6500만달러 규모(2023년 2억달러)의 수출상당액의 성과를 냈다.

금남로와 충장로 일원에서 열린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 (10월2일~10월6일)에는 광주버스킹월드컵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아시아문화주간이 잇따라 열려 광주를 대표하는 도심축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테이스티 광주'는 지난 17일부터 이달 26일까지 10일 간 맛을 주제로 6개의 행사가 열렸다.

먼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호남 최대 규모의 식품산업 전시회인 '광주식품대전' (10월17일~10월20일)은 300개사가 참가해 450개 부스를 운영하며 전년 대비 2배 이상의 상담건수로 104억원의 상담액과 약 32억원의 계약을 달성했다.

광주시청 광장에서는 남도김치를 한 자

리에 만날 수 있는 '광주김치축제' (10월18일~10월20일)가 열렸다. 천인의 밥상, 광주김치 스타셰프 푸드쇼, 김치경연대회, 헬로우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으로 방문객에게 가을의 볼거리와 재미를 선사했다.

광주대표 생태환경축제인 '광주서창역 새축제' (10월17일~10월20일)가 열려 김치축제와 김대중컨벤션센터를 방문한 관람객들이 자연힐링과 도심축제를 함께 즐길 수 있게 했다.

지난 19일에는 송정역세권 맛집부터 남도 전통시장, 전국의 맛집들이 참여하는 '광주송정 남도 맛 페스티벌', 26일에는 다양한 로컬커피와 디저트를 맛볼 수 있는 '동명커피산책'이 맛의 광주를 더욱 빛냈다.

광주시는 관광객의 편리한 이동을 위해 광주투어버스 정류장에 서창역새축제장과 광주시청을 추가하고, 김대중컨벤션센터를 경유하는 셔틀버스도 운행해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였다. 또, 개별 축제 현장에서 'G-페스타 광주' 통합 홍보부스를 운영해 다양한 축제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광주시는 참여기관과 함께 올해 G-페스타 광주의 성과와 보완할 점, 내년 연계콘텐츠 구성 등을 논의해 G-페스타 광주를 한층 고도화할 계획이다.

강기정 시장은 "축제, 명소, 사람을 연결하고 통합해 시너지를 높였다. 앞으로도 광주만의 자산과 가치를 담은 축제도시 브랜딩을 통해 재미와 활력 넘치는 꿀잼도시 광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가족단위 시민들이 지난 19일 광주시청 일원에서 열린 '제31회 광주김치축제'에서 알타리 김치와 배추 김치 등을 시식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전남도,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 지원

순천농협·보성장양영농조합 육묘장·색채선별기 등 5억씩

전남도는 '2025년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 사업' 대상자에 순천농협과 보성 장양영농조합인원을 선정해 1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 사업은 친환경 비 10ha(비 이외 품목은 2ha) 이상을 인증받은 생산자단체에 친환경농산물 전용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반농산물과 달리 친환경농산물을 별도로 취급해야 하는 특별한 때문에 친

환경농산물 전용 생산·유통시설이 필요하다.

이에 전남도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사업을 통해 친환경농산물의 특수성을 반영, 생산부터 유통까지 친환경농산물 전용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3년부터 총 45개 시설에 240억 원을 지원했다.

이와 더불어 2025년도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9월부터 사업 신청을 받아 서류와 현장심사, 전문가 평가를 거쳐 순천농협과 보성 장양영농조합인원을 선정해 각각 5억 원을 지원기로 했다. 전남도는 친환경 비 전용 육묘장과 색채선별기 등 가공장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유덕규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전남은 대한민국 친환경농업 거점으로서 미래 친환경농업을 선도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뿐만 아니라 품목 다양화, 저탄소 유기농업 확산, 유기가공식품 등 친환경농식품 수출을 확대하는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며 "전남이 미래형 친환경농업의 본보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자체적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사업 등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그동안 노력한 결과 전국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의 51%와 인증농가의 44%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오지현 기자

광주시, 아파트분양 불법현수막 특별정비

자치구와 연말까지 합동단속

광주시는 5개 자치구와 함께 가로경관을 훼손하고 시민 보행안전에 위협을 주는 아파트분양 불법현수막을 연말까지 지속해 정비한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정비에서 허가와 신고 없이 불법으로 게시된 아파트분양 불법현수막을 정비해 장당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여러 장인 경우 중과 부과와 함께 시행사 등 관계자를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5개 자치구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운영하고, 평일과 공휴일 주간·야간 상관없이 상시 정비체계를 구축해 아파트

분양 불법현수막이 난립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지난 1월 불법현수막에 대해 과태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등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했다. 합동점검반은 올해 11만8600건(지난 10월1일 기준)을 정비했으며, 이는 지난해(2023년 10월1일 기준 61만3672건)보다 80% 감소한 것으로, 특별정비 효과로 분석된다.

박금화 건축경관과장은 "도시미관과 시민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집중 점검·정비해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전남관광 글로벌 SNS 서포터즈, 남도 홍보 '앞장'

18개국 35명 관광·미식 체험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은 '전남관광 글로벌 SNS 서포터즈'를 초청해 전남 곳곳을 누비는 팸투어를 지난 27일까지 7일간 추진, 전남의 경쟁력 있는 관광콘텐츠와 남도의 매력을 집중 홍보했다고 밝혔다.

전남관광 글로벌 SNS 서포터즈는 전남관광 해외 홍보를 위해 2022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35개국 170여 명의

외국인으로 구성됐다.

이번 팸투어에는 미국, 프랑스, 인도네시아 등 18개국 35명의 서포터즈가 목포, 해남, 여수, 순천, 담양에 방문해 남도미식을 즐기고 김밥 만들기, 사찰 다도체험 등 전남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만끽했다.

특히 지난 25일부터 영암에서 개최한 캠핑박람회와 전남 글로벌 인플루언서 페스티벌도 참여해 전남 여행 콘텐츠 제작과 전남 관광을 홍보하는 역할도 했다.

전남도는 서포터즈의 누리소통망(SNS) 후기를 통해 전 세계인에게 전남의 아름다운 자연과 뛰어난 문화예술을 널리 알리고 '2024~2026 전남세계관광문화대전' 홍보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심우정 전남도 관광과장은 "전남도는 2024~2026 세계관광문화대전을 통해 축제·둘레길, 남도미식, 웰니스, 남도 케이(K)-컬처 등 경쟁력 있는 로컬 관광자원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며 "전남도의 특화된 관광자원을 글로벌 SNS 서포터즈와 함께 전 세계인에게 알려 전남에 찾아올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전남동물위생시험소 "닭 뉴캐슬병 청정지역"

항원검사 결과 모두 음성

전남동물위생시험소가 실시한 오리과 기타 가금류 등의 항원 검사 결과가 모두 음성으로 분석돼 전남이 뉴캐슬병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캐슬병은 닭의 소화기와 호흡기, 신경 등에 이상을 일으키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는 특징이 있다.

전남동물위생시험소는 뉴캐슬병 감염 여부를 조기에 발견하고 질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검사 대상 축종을 닭에서 오리와 기타 가금류까지 확대 시행하는 등 온힘을 쏟고 있다.

그동안에 시험소는 닭에서 백신 접종 후 항체 양성률을 조사했으나 뉴캐슬병의

경우 제1종 법정가축전염병으로 모든 조류에 감염될 수 있어 지난해 하반기부터 닭, 오리, 기타 가금류까지 뉴캐슬병 바이러스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는 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전남동물위생시험소는 올해 가금농장, 도축장 닭 269개소 1만8000건에 대해 항체검사를 실시했고, 양성률은 68.8%로 나타났다. 도축장에 닭을 출하한 농장 2곳은 항체 양성률이 기준보다 미흡해 시군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치했다.

오리와 기타 가금류 등 598개소 1373건에 대해 바이러스 존재 유무를 확인하는 항원검사에서는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오지현 기자